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로 만나 꿈 꿀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유·스퀘어문화관이 문을 열었을 때 지역 문화계가 가장 반긴 공간은 클래식 음악전용관 금호아트홀(316석)이었다.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갖춘 금호아트홀은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는 연주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역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연장이 됐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손윤음, 금호제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등이 다

치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굿 공연' 시리즈는 '금호스페셜리스트' 시리즈와 함께 유·스퀘어문화관의 대표 기획물로 자리잡았다. 지금까지 뮤지컬 '마법사들', '짝사랑', '달콤'과 연극 '묻지마 육남매', '아유크레이지', '사랑한다면 이틀처럼', '발칙한 로맨스' 등이 공연됐고 오는 7월17일부터는 추리극 '그 놈을 잡아라'가 관객들을

'굿 공연' '금호스페셜리스트' 대표 기획물로 자리잡아

예술 꿈나무 양성... 올해 첫 '광주 14색 페스티벌' 개최

나갔고, 지난 2012년부터 선보인 '금호스페셜리스트' 시리즈를 통해서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바우어, 첼리스트 김민지, 노부스과르랫,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등이 공연을 마쳤다. 12월에는 떠오르는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금호아트홀과 다목적 공연장인 동산아트홀(243석), 금호갤러리를 갖춘 유·스퀘어문화관이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았다.

문화관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관 업무 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 유

만난다.

문화관은 지역 작가들을 격려하고, 예술 영재를 발굴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초창기 '금호갤러리 영아티스트전'에서 이름을 바꾼 '유·스퀘어 청년작가 지원전'은 공모를 통해 떠오르는 작가들 선정, 무료 대관과 홍보 등을 도와주는 프로젝트다.

2009년 임정임·허경애씨를 시작으로 올해는 임희진·윤준영·양나희씨 등 12명이 지원을 받았다.

예술 꿈나무를 지원하는 '금호주니어콘서트' 역시 예술가들 꿈꾸는 이들에게 단비같은 존재다. 지금까지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로 이뤄진 유·스퀘어문화관이 최근 개관 5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개관 기념콘서트로 마련된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공연 모습. <유·스퀘어문화관 제공>

지 총 40명의 예술영재들이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1회 출연자인 최현호군이 베를린음악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문화단체들과 올해 역시 오디션 과정을 거쳐 초등 학교 3학년인 바이올린의 남린양 등이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문화관은 광주문화재단과 연계해 광주 지역 14개 공연장 상주단체들이 함께 진행하는 '광주 14색(色)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금호아트홀과 동산아트홀을 통해 푸른연극마을,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등 상주단체 사업을 진행했던 데서 규모를 키워 극단 청춘,

주던 데서 벗어나 각 공연장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가 직접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문화단체들과 연계 사업이 대폭 늘어난 게 특징이다.

문화관은 광주문화재단과 연계해 광주 지역 14개 공연장 상주단체들이 함께 진행하는 '광주 14색(色)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금호아트홀과 동산아트홀을 통해 푸른연극마을,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등 상주단체 사업을 진행했던 데서 규모를 키워 극단 청춘,

그린발레단 등 광주 지역 14개 모든 상주단체들이 대표작을 공연하는 행사다.

또 광주연극협회와 후원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전국청소년연극제 광주예선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유·스퀘어문화관 임용 팀장은 "스페셜리스트, 굿 공연 시리즈를 통해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한편 올해 처음 시작하는 광주 14색 페스티벌 등을 통해 지역 문화계와도 지속적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즈넉한 양림동의 초여름밤을 아름다운 감동으로 수놓을 가족음악회가 열린다.

문화예술전문단체 '공연 순수(대표 정현기)'는 14일 오후 7시 30분 양림미술관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part2:오! 그대여 변치마오'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 시도문화지원사업의 일환인 '양림의 소리를 듣다'의 두 번째 무대인 이번 공연은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김현승 시인과 '광주·전남 선교의 아버지' 배유지(Eugene Bell·1868~1925) 목사를 기리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미국인인 배 목사는 1895년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돼 목포선교부와 광주선교부를 창설했다. 목포 정명학교·영흥학교, 광주 송일학교·수피아여학교와 광주 최초의 병원인 제중병원(현 광주기독병원) 설립에 함께 했다.

한국현대사의 거목 다형 김현승 시인은 배유지 목사가 세운 양림교회에

아버지가 목사로 부임해 오면서 일곱 살부터 양림동에서 자랐다. 송일소학교를 다니면서 양림동 언덕과 무등산에서 감수성 짙은 시심을 키웠고 송일소학교 교사, 조선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제자들을 양성했다.

공연은 문병란 시인이 은사 김현승 시인과 배유지 목사에 관한 토크와 함께 시낭송으로 시작된다. 이어 배이스 임해철, 테너 김백호, 소프라노 김진희 교수 등 지역 출신 성악가들이 출연해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오페라 '춘희' 중 추배의 노래, 한국민요 신고산타령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노나사 앙상블은 아리랑, 리베로 탱고, 라데츠키 행진곡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전 출연진이 사의 찬미, 애수의 소아곡, 감격시대 등 추억의 가요 메들리로 장식하고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공연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문의 070-4240-097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타악그룹 '얼수' 15~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물과 불을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소리인 타악으로 표현한 작품 '인수화풍(人水火風)'이 무대에 오른다.

타악그룹 '얼수'는 15~16일 오후 4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페스티벌 오!광주' 브랜드공연 출품작 '인수화풍'을 선보인다.

단순한 두드림이라는 타악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인문화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탄생한 '인수화풍'은 인간(人)과 물(水) 불(火) 바람(風)이라는 자연의 순환 원리를 창작악기와 현대음악을 접목시켜 다양한 연주가락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공연은 '인풍', '인수', '인화', '인수

화풍' 4바탕으로 구성된다. 바람을 소재로 한 '인풍'은 생명 이전의 어느 때와 곳으로부터 시작됨을, '인수'는 생명의 첫 시작이 되는 경이로운 탄생을 신명난 몸짓과 가락, 물결기로 표현한다.

'인화'는 자연의 순환과정인 나고, 자라고, 소멸하는 과정을 불을 이용해 표현하고, 마지막 인수화풍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준다.

'얼수'의 김양근 대표와 한석중, 고창길, 류제은, 이명은, 김대선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은 2만원, 1만 5000원, 1만원. 문의 062-670-746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人水火風'

'통일 시인' 이기형 별세

통일을 주제로 작곡활동을 해 온 이기형 시인이 별세했다. 향년 96세.

1917년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도쿄 일본대학 예술부 창작과에서 2년간 수학한 후 1947년 '민주조선'지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몽양 여운형의 비서였던 그는 몽양이 서거한 후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침묵했다. 이후 33년 만인 1980년 다시 시작 활동을 재개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14일 오전, /연남뉴스

'흥'으로 '맛'으로

둘째주 금요일엔 대인예술 야시장에서

'흥'과 '맛'으로 시민들의 여름 밤을 사로잡을 대인예술 야시장이 문을 연다.

2013아시아문화예술융합성장점프로그램 '노들마루사업단'은 14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전 2시까지 대인예술시장 내 분전삼거리 일대에서 올해 첫 번째 야시장을 진행한다.

이번 야시장에는 대인시장 상주작가 20팀, 공예진흥회원 48팀, 시민참여 67팀, 상인 16팀 등 150여개 팀이 참여해 야시장 진행 이후 최대 참여를 기록했다.

예술야시장 주제는 '흥'으로 기획공연, 맛기획전, 만물예술마차 등이 어우러진다. 공연은 스타카토 리퍼블릭의 연주자 정운준씨의 기타공연에 이어 대인시장 합

동무어리 '라이져크루', 부산인 디문화공간 AGIT 디렉터 류성호씨와 DJ 김프르씨와 '디제이 파티'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대인 맛기획마차'에서는 대인 시장 상인회와 흥여협동조합이 준비한 흥어삼합과 1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천원밥집', 이주노동자 다섯 팀이 선보이는 '오색오미(五色五味)'를 맛볼 수 있다.

만물예술마차에서는 시장작가들이 만든 다양한 아트상품과 예술작품이 판매되고 시장 곳곳에서 부채, 탈, 액세서리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진행된다.

대인예술야시장은 매일 둘째주 금요일 열린다. 문의 062-670-745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코잔드침대

이승엽침대
코잔드 201 진동안마침대
프레임 A6247

코잔드침대 온열,안마침대 이승엽침대

소파 60종류

이태리엔틱 식탁, TV장

자하~2층 소파, 식탁 전문매장 3층 온열, 안마, 단롭침대 4,5층 50%할인매장

NAVER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